

권영진 대구광역시장-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 회장

한중 도시포럼 운영 업무협약 체결

권영진 대구광역시장과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 회장은 지난 29일 오후 대구광역시청 별관 3층 회의실에서 ‘한중 우호 도시포럼’ 공동 운영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한중도시우호협회는 오는 10월 27일 대구시 수성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코로나19 이후 한중 지방정부 교류 활성화를 주제로 한중 도시포럼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대구시 주최, 한중도시우호협회 주관, 주한중국대사관 후원으로 추진되는 한중 도시포럼에는 중국 6개 도시가 초청될 예정이다. 포럼 부대행사로 는 ‘2021 한중 우호 청년포럼’과 ‘중국 서부지역 사진전’이 열린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한중 도시포럼의 성공을 위해 한중도시우호협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권기식 회장은 “한중 도시교류에 가장 적극적인 대구시에서 한중 도시포럼을 추진하게 돼 한중 우호와 도시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구시와 함께 한중 도시포럼의 정례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 회장과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오른쪽)

시고 노(魯)나라로 망명하고, 포숙아는 소백 왕자를 모시고 거(僞)나라로 피신했다. 그러던 중 제나라에 또다시 정변이 일어나 제나라 왕위가 비게 되었다. 규와 소백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군주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수도 임치를 향해 출발했다.

관중은 별동대를 데리고 포숙아가 모시는 소백이 지나가는 길목에 매복해 있다가 활을 쏘아 소백을 명중시켰다. 소백은 말에서 굴러떨어진다. 이에 관중은 소백이 죽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소백은 죽지 않고 그 길로 서둘러 귀국하여 제나라 군주에 즉위하고 말았다. 제환공이다. 제환공은 정적이 된 규를 살해하고 자신에게 활을 쏘아 규를 보좌하며 자신을 저격하려다 실패한 관중을当场 죽이려고 했다. 그러자 포숙아는 제환공에게 “제나라 한 나라만을 통치하고자 하신다면 관중을 죽여도 좋으나 천하의 패자가 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관중을 중용해야 합니다.”라고 간언한다. 또한 환공이 자신을 재상으로 삼으려 하자 포숙아는 관중의 능력이 비범함을 진언하며 그를 제나라의 재상으로 등용할 것을 거듭 요청한다. 결국 환공은 포숙아의 간청에 따라 관중을 재상으로 삼는다. 관중은 무력을 쓰지 않고 아홉 번이나 회합을 주동하여 춘추시대의 질서를 바로잡고 제환공을 춘추오패 중 가장 먼저 패자의 자리에 오르게 한다. 훗날 관중은 “제상에 나를 낳아준 이는 부모지만 나를 알아준 사람은 포숙아다”라고 말하여 우정의 대명사가 되었다.

관중은 중국 역사상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탁월한 정치가로 평가받고 있다. 제갈량도 관중을 모델로 삼을 정도였다. 포숙아가 없었다면 관중은 없었을 것이다. 권시장과 권회장도 서로가 서로에게 포숙아가 되어 이해하고 알아주며 관중처럼, 아니 관중보다 더 큰 뜻을 펼치기를 고대한다. 포숙아와 같은 포용력으로 서로를 품어주고 관중과 같이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여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사회적 이익 수호는 물론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층 더 제고시키기를 기대한다. 항렬도 같고 동갑내기인 두 사람의 21세기 새로운 관포지교의 역사 쓰기와 대붕(大鵬)의 날개짓은 벌써 시작되었다. 편집국장 권영환

권대봉 박사 중부대 제10대 총장 취임

권대봉 박사가 중부대학교 제10대 총장에 9월 1일 취임했다. 권대봉 총장은 인천재능대 총장을 역임한 바 있다. 권대봉 총장은 고려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국내·외 기업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뒤 미국 미시간주립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동 대학 교육행정학과 조교수와 국제전문인과정(VIPP)초대 Director, 고려대 사범대학장 및 교육대학원장, 국무총리 산하 제5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 세계은행 컨설턴트, 방글라데시 SEIP 국제정책자문관 등을 역임했다. 특히 권대봉 총장은 인천재능대학교를



인공지능과 바이오선도대학(AI & Bio Frontier)으로 특성화하는 성과를 일궈왔으며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 재임시 OECD와 연구 협력을 주도했다. 세계은행 및 유네스코와 협업체 개발도상국의 인력개발교육(HRD)을 선도하는 등 국제개발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권 총장의 임기는 2024년 8월까지다.

권태중교수 캐나다에서 학술상 수상

권태중교수가 캐나다한인과학기술자협회(AKCSE)에서 수여하는 청년 업적상의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권태중교수(41세)는 본회 종사연구위원장인 권중달교수의 장남으로 캐나다로 유학하여 캐나다 워터루공과대학교에서 공학박사학위를 받은 후, 바로 에드몬튼에 있는 알바타대학교 공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알바타대학은 캐나다 중서부에 위치한 캐나다 연구중심 명문대학으로 재학생 4만 명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학이다.

권 교수는 2016년에 알바타대학교에 교수로 취임한 뒤 캐나다한인과학기술자협회의 센트럴 알바타지부장으로 활동하였고, 에드몬튼한국장학재단의 이사로도 활동하였으며, 미국 15개주 컨소시엄으로 추진 중인 연구 사업을 5년간 계속 수행하고 있다. 또 알바타대학교 공과대학에서 제자들이 뽑은 지도교수상과 공과대학 연



권태중 교수와 권중달 중앙대 역사학과 명예교수(오른쪽)

구업적상을 이미 수상한 바 있다. 이번 수상은 교수로 임용된 지 6년 미만인 젊은 교수 가운데 논문 등 연구업적과 국제적인 연구와 교육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결정하였다. 권 교수에 대한 시상식은 2021년 9월 3일 노바스코주에 있는 헤리팩스에서 거행할 예정이다.

‘故권대희씨 수술실 방치’ 의사 징역 3년·법정구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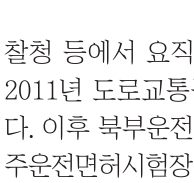
고(故) 권대희씨가 세상을 떠난지 5년이 되었다. 고(故) 권대희씨를 수술 도중 사망에 이르게 한 성형외과 병원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서

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장모씨에게 징역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최 부장판사는 장씨가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법정에서 판결 선고를 지켜본 (故) 권대희씨 어머니 이나금 환자권익연구소 소장은 “의사들한테 왜 이렇게 법이 관용을 베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수술실에 들어갈 때 유서 써놓고 들어가야 해요”라며 형량에 큰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동안 유족들은 CCTV 영상과 의무기록지를 확보하고 권씨가 위급한 상황에 이르렀는데도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권씨의 사고로 어머니 이나금 환자권익연구소 소장은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회는 환자의 수술실 안전과 인권을 위해 CCTV 설치 제제화에 나서 달라는 1인 시위 등을 펼쳐 ‘권대희법’ 입법 움직임으로 이어지기도 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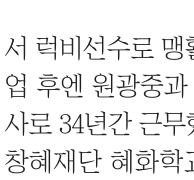
▲권봉관(59) 제4대 경북교통방송 사장이 7월 28일 취임했다. 권봉관 신임 사장은 경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경남경찰청 등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뒤 2011년 도로교통공단으로 이직했다. 이후 북부안전면허시험장과 제주안전면허시험장, 포항안전면허시험장, 마산안전면허시험장 단장으로 근무했고 공개모집을 통해 경북교통방송 사장에 취임했다. 권봉관 사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훈훈하고 따뜻한 방송을 만들고 싶다”며 “낮은 자세로 소시민의 삶에 관심을 갖고, 경북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소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익진 익산시파크골프협회 회장이 취임했다. 권 회장은 만능스포츠맨이다. 이리공고 출신인 권 회장은 원광대학교에서 럭비선수로 맹활약하고, 대학 졸업 후엔 원광중과 원광여중 체육교사로 34년간 근무했다. 정년퇴직 후 창혜재단 혜화학교 이사장을 역임했다.

지만 잔여임기는 2022년 9월까지 1년 2개월이다. 현재 그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과산군연합회장을 겸하고 있다.

▲권송(權松)(29세)씨가 2021년 U. of Wisconsin-Madison School of Pharmacy 박사과정에 합격하였다. 권송씨는 안동읍지 [영가지(1608년)]를 편찬한 정사(徵士) 용만(龍巒) 권기(權紀)의 14세손이다. 130명의 약학박사과정 선발에 5,000명이 지원하여 138:1의 치열한 경쟁을 보인 가운데 외국인으로는 유일하게 합격했다. 권송씨는 IQ가 153이고, Emory U. (Georgia) 화학과 및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생화학 석사를; 이길녀 폐암연구원에서 산업전문요원으로 근무하는 3년 동안 9편의 SCI논문을 발표한 수재이다. Wisconsin-Madison 약학과는 미국 약학대학 랭킹 2위의 대학으로 명문이다. 권송의 부친인 권기대 공주대 교수는 우리나라 농산물 브랜드와 관련한 논문을 100편 발표하고; [농산물 브랜드마케팅] (2019년) 등 15권의 저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농업축산정책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다. 최근에는 영가지를 토대로 안동전통 문화도시로서의 경쟁우위 분석을 연구하고 있다.



▲권영탁 대표(사진 오른쪽)가 이끄는 핀크(주)의 게임형 금융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핀크 리얼리’가 제1회 대한민국 스마트금융 대상 최우수상(한국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상)을 수상했다. 금융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게임을 최초로 접목한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핀크는 핀크 리얼리를 통해 사용자들이 매일 금융 관리를 습관화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며, 앞으로 부동산, 자동차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통합자산관리 서비스로 고도화를 계획이다.

▲권오덕 과산업연초생산협동조합장이 지난 7월 27일 취임했다. 권오덕 조합장은 전 조합장이 사퇴함에 따라 보궐선거로 당선됐다. 따라서 조합장의 임기는 4년이

▲권해조(權海兆, 북아공파 36世) 정보편집위원이 담쟁이문학회(회장 이영순)에서 주최하는 제1회 담쟁이문학상(수필)을 수상했다. 이번에 수상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신선 열하일기를 읽고”이다. <담쟁이문학>은 2016년 1월 창립된 후 지금까지 제5호 동인지를 출판했으며, 매년 문학기행을 다녀오는 등 활발한 문학활동을 펼치고 있다. 권해조 정보편집위원은 2009년 <문예춘추>에 등단했으며 2012년 제26회 허균문학상 수필부문 금상을 수상하였고, 수필집으로는 <대봉산의 메아리>와 <해나무 그들의 노닐> 등이 있다. 권해조 수상자는 1943년 함전에서 태어나 육사(24기)를 졸업하고 1968년 포병장교로 임관해 월남전 파병, 포병대대장·포병연대장을 거쳐 한미연합사 정책운영처장을 지냈으며, 학구파 장군으로 태국과 일본의 국방무관을 역임한 바 있다. 1998년 전역 후에는 국방안보분야 강사와 초빙교수 등으로 강의·강연 및 안동권씨종보와 경기대일리 등 언론매체에 칼럼을 기고하며 칼럼니스트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한학자인 설암 권옥현 선생의 4남이다.



됐다. 따라서 조합장의 임기는 4년이

안동권씨 대종회 회관 사무실과 원룸 임대 안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과 각 대학교의 장기적인 비대면 수업으로 인하여 안동권씨 대종회 회관의 사무실과 원룸에 공실이 많이 발생하여 안내하오니 입주를 원하는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대종회에 소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회관 주소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2길 11 (용두동 102-196) ※ 제기동역 6번 출구 바로 앞 (교통 편리합니다)
◎ 연락처 : 안동권씨 대종회 사무처 02-2695-2483

◎ 회관 공실 임대 안내

임대할 부분	면적	보증금	월임대료
사무실 201호	30㎡ (약 9평)	1천만원	70만원
원룸 306호	20㎡ (약 6평)	3백만원	30만원
원룸 401호	20㎡ (약 6평)	3백만원	30만원
원룸 402호	20㎡ (약 6평)	3백만원	30만원
원룸 403호	20㎡ (약 6평)	3백만원	30만원
원룸 404호	20㎡ (약 6평)	3백만원	30만원
원룸 406호	20㎡ (약 6평)	3백만원	30만원
원룸 옥탑방	18㎡ (약 5평)	3백만원	50만원

안동권씨 대종회